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나는 무한 에너지 갖고있는 자본가

17면에서 계속

다 하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마음도 증명할까요

문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밝혀 보겠다는 두뇌연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몸과 별도로 존재하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일경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는 마음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망상일 뿐이며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다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겠지만 때로는 영동한 일도 없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문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다가 폭발해서 발이 되고 태양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안다는 것 만큼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연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잘못 쓴 마음이 입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참으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곱게, 둥글게 써야 합니다. 한 생각 잘 내고 잘 풀려야 하겠지요.

“내 한생각 우주와 직결되어있어 용도따라 에너지 꺼내 쓸수있고 일체만물 자동통신 우연 없어요”

문 이 물질로써 현재에 존재하는 것만을 따져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의 '부(父)'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전자의 '부'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끼어 있는데 마음을 알려면 바로 과학의 나와 전자의 부가 한데 합쳐지는 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마음이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와 한데 합쳐져서 마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용도에 따라서 들고 나는데 거기에 더한다 덜한다의 한계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을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가 하면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 만생이,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극한적인 문제를 나를 발견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려 들면 모양이 어떻다니, 크기가 어떻다니 하는 식으로 따지는데 그래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오신통 범위에 들어갑니다. 앓은 자리에서 천리를 보고 듣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천안통, 천이통, 신즉통...을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건 도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오신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을 자유롭게 굴릴 수 없죠. '나'라는 존재도 알 길이 없어요.

이 오신통을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만 삼세심을 다 깨닫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알텐데 말입니다. 그래야만 아주 갈림없는 능력도 지해도 생길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으니 어항을 알아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가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가 이 공기중에서 안에서 한발 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공기 주머니 밖이 아니라 어디라도 아주 풍대무뎠게 뻗을 수 있고 그러고도 여 여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정체가 어떤가를 알려면 바로 '나'라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일경이란 말을 하겠는데 이 말이야 뿌리하든 그것이 모든 것의 영원한 뿌리입니다. 형성된 것도 거기서 비롯되었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도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살던 것까지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현실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과학자들의 말로 하면 소립자나 입자나 하는 게 되고 입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분자, 분자에서 원자까지 다 깨졌다 한다는 말이 되지요.

국내외로 사건이 많습니다

문 세계적으로 보이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이도 안좋은 일들이 너무

비록 꿈을 꾸더라도 한 생각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나는 중생이니까, 모자라니까 힘이 없지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한 생각은 우주와 직결이 되어 있고 삼라만상과 다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얼마든지 용도에 따라 끌어다 쓸 수 있는 자본이 주어져 있던 말입니다. 내 바탕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의 그 에너지는 어떠한 용도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수화풍 때문에 살고 지수화풍의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이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이 통하니 한 개인이 짝! 소리만 해도 전부 응하게 됩니다. 모이지면 모이고 흩어지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통하고 직결되고 한 마당에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잣대로 썰고 해서 하는 식으로 따지는데 그래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잘보아서 안되지요. 잘보아서 안될 뿐 아니라 각자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비록 많이 알고 잘 냈다 해도 상대를 잘 보지 말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두드려보고 가고, 모르는 것은 물어서 가라 이거죠.



그림 · 최주현

도리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광대무변한 법, 부처님 법이냐 우리들의 법이냐 도리를 깨달아서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지구가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조용한 장소 찾고 거기서 쭉고 앉아서 그냥 붙들고 떨고 하면 이 마음이 통쾌하게 나올까요? 자유로운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리게

어떻게 관 속될 들어 갑니까? 관속에 들어갈 사이는 어디 있구요?

마음은 선 것도 아니고 안 선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조용한 장소 찾고 거기서 쭉고 앉아서 그냥 붙들고 떨고 하면 이 마음이 통쾌하게 나올까요? 자유로운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리게

“돌이나 풀도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채찍” “이 몸뚱이가 토굴인데 또 토굴을 찾습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스승으로 알고 나의 은인인 출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물이 아니었다면 살 수도 없거나 보고 듣고 배울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고 은혜로운 대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행을 한다면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고 정법으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불교에서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힘은 따로 한계가 없어서 우주에 한계가 있다 없다는 소리조차 불일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넓게 쓰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쁜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뿌리에서 온 것이니까 좋은 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력된게 바뀌어서 좋은 에너지가 배출되겠지요.

이것은 내 몸뚱이, 이 살림살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삼천대천세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체가 없는 고로 그렇게 할나할나에 바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리는 참으로 무서운 도리이면서 자비한 도리이고 자비하면서 무궁무진한

에게 이 광대한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도리를 모르면 세세생생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광대한 모범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적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라..., 절대니까 믿어야 합니다.

토굴서 공부하고 싶은데...

문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조용한 곳 가서 침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않는 것만이 공부 아니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어디 조용한 도량에 가서 한 칠 견뎌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 이것 보세요. 채찍은 돌에요. 토굴이 아님니까? 아, 이 몸뚱이가 토굴이냐고 물어봐서 나오고 동물에서 나오고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어린애한테서도 나오고 하마한테서 풀 벌레한테서도 나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속아넘어갑니까? 옆에서 누가 이리라고 속고 책을 보고는 이 방법도 좋겠구나 하고 속고..., 갈대처럼 굴어서 되겠습니까? 이 공부한다고 죽으러 관 속에 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죽어야 관 속에 들어가 죽지 않는 사람이

모두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상대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예 이 공부 못합니다. 오산이요. 모두가 다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 마음도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래야 되겠다고 내 마음으로 옥매어 놓지 말고 그대로 순응하라, 이쪽 물에서 놀려면 이쪽 물에 순응하고 저쪽 물에서 놀려면 저쪽 물에 순응해야지 이쪽 물에서 놀면서 저쪽 물을 생각한다면 온통 걸리는 일뿐이겠지요.

과거의 습이 어딘지 모르게 특특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빚어지는데 그것도 다 제 속에서 나온거니까 제 속에도 놓고 순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조용한 토굴을 말하시는데 어디 가서 앉았어도 토굴이요 싶어도 토굴이 아님니까? 아, 이 몸뚱이가 토굴인데 어디 또 토굴을 들어갑니까? 토굴이 어째서 또 토굴을 찾느냐 이 소리지요.

토굴에다 토굴을 넣는다? 이건 이치에 맞질 않지요. 요즘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법회참석에 회의를 생겨요

문 일년 내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하기를 맺년

째 계속 했습니다. 정진 법회에도 참석했고 특별법회식 때도 빠지지 않았습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조금 무더운 날이었는데 불현듯이 이 더운 날에 꼭 이래야만 되는가, 이래야만 풀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론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어리석은 탓에 그러고 지냅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 세상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우리는 어떨거나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합니다.

가죽이 되었건 도반이 되었건 같이 돌아가고 같이 하나로 살고 있지만 모습이 각각이니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만나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돌아다니면서다 나뉘었다가 합쳐졌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사실을 불가불 알아야만

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종교다, 저렇게 하는 게 불자된 도리이다 하기 이전에 생활이 종교요 생활 속에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아야 이겁니다. 그럴 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자주 들어서 내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건 매우 중요하겠지요.

'만물만생이 다 스승' 이라는데...

문 스님께서는 자주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 나무를 가지고 한말씀 해주십시오.

문 사람 사이에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스승이고 만물만이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지요.

문 보세요. 저 나무들도 불이 되면 짝이 되고 무성하게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들면 잎이 집니다.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도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곱게, 둥글게 쓰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정혈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하겠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주머니에서 나와서 주머니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도리를 배워서 주머니 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조차 듣지 못한다면 생각해 볼 점도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라도 듣고 내 마음의 진로를 넓힐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바쁜 중에도, 덤뚱지 춤든지 법회엔 나가는 이유를 짐작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도리를 배우고 증득해서 주머니 속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엔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좀 모르는 듯 해야 옛날 선지식들이 화두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넘어왔듯이 그렇게 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두심이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는데 해도 물질로 형상으로 치달는 게 많고 알음알이가 많아서 진짜 정신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형상으로 치달는다고

그리고는 겨울내내 그 추운 눈보라를 다 견뎌내고 끄떡없이 인내하며 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엔 만가지 수확이 다 들어 있던 말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 쓰는 일에 스승 삼을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참는 마음, 인욕을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것, 정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자유로운 게 있다고 인내할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봄날의 따스한 빛도 볼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추위가 싫다, 눈보라가 싫다, 낙엽지는 게 싫다대로 욕심내는 대로 일을 해 제간다면 화목함도 가져올 수 없고 재물도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도 열매처럼 생각이 있거든요. 그 집열 들어가려다가 말입니다. 마음 바탕이 잘못되고 시끄럽다 싶으면 딱 데로 갑니다. 아! 이걸 이 집에 들어와 보았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싸움질이나 할테니 싫다! 하고는 딱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 나무처럼 세상 탓하지 않고 다소곳이 인내하며 봄을 맞이하는 거기에 왜 배울게 없겠습니까? 그냥 내 스승이 아니고 됩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그러해서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포기를 보아도 내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면 스승이요 내 스승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아도 내가 배울게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스승입니다. 산에 나무들이 어떤진 크고 어떤진 작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어울려 사는 걸 보아도 스승 아닌게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책을 보고 배운 적도 없고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공부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걸 공부라고 하는지 아닌지도 모른면서 그냥 산으로 돌아다녔는데 한참 지나서야 산천초목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개미들이 흙을 몰아다가 제 구멍 앞에 제 간에는 독을 쌓는 걸 보았는데 얼마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것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스승 아님께 어디 있습니까?

문 그걸 보고 배우라고 팔만사천 대장경을 펼쳐 놓는데 아님니까? 글로 써서 책으로 꾸며 놓은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함께 공생하고 공용 공식 하며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팔만사천 법문이고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러서 이런 말도 있지요. 물은 날보고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날보고 산같이 살라 하네 하고 말입니다.

김도영 · 박미현 · 김주희 · 김광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535번지